

이 덕 배

(leedd419@rda.go.kr)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다원적기능평가연구 팀장

## 「농업환경보전을 위한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방안」 국제심포지엄 개최

농촌진흥청과 한국환경농학회 공동 주관으로 지난 4월 18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실에서 수자원 단체 및 국내외 관계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 환경보전을 위한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방안’이라는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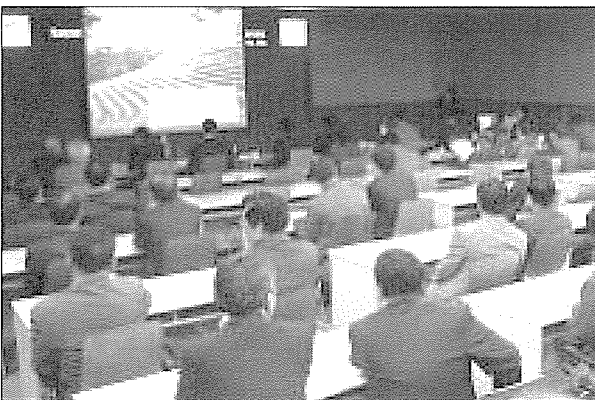
이번 국제심포지엄의 목적은 농업활동에 있어서 수자원의 이용에 따른 농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농업용 수자원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주제발표는 농진청 농업과학기술원 엄기철 원장이 ‘농업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술’, 러시아 모스크바 대학 세르게이 쇼바교수가 ‘러시아에서 토양복원과 수질개선 기술’을, ‘일본의 농업공학 연구소 야마오카 박사의 ‘논농업에서 물관리 기술과 다원적 기능’들이 발표되었다.

중국 환경과 지속발전연구소 메이슈롱 소장의 ‘중국의 효율적인 농업용수 이용전략’, 러시아 Dr. B. T. Trofimov의 ‘한대건조지대의 농업용수 관리기술’,

오스트리아 Prof. Dr. Hans Zojer의 ‘산악지 농업에서 수자원 관리기술’, 일본 Dr. Ithhashi S의 ‘일본 지역별 질소부하의 비교 및 예측’, 중국 Dr Wang QS의 ‘물부족지역에서 효율적인 농업용수 사용 전략’, 한경대 이상은 교수의 ‘농산물 안전생상을 위한 농업용수 수질관리’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의 공통된 의견은 “농업은 인류의 먹거리인 농산물을 생산하는 주요한 기능 이외에도, 국토의 균형발전, 농촌 고용 증진, 환경보전, 식량 안보, 전통문화 계승 등과 같이 다원적 기능을 갖고 있다” 며, “이중 농업이 갖고 있는 홍수 방지, 토양유실 방지, 수질 정화와 같은 환경보전기능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의 국토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보전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농업용 수자원 관리기술과 양질의 농업용수자원의 다량 확보 기술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 “농업 환경보전을 위한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방안” 국제 심포지엄 개최 모습



△ 심포지엄 개최 후 주제 발표자와 함께 기념 촬영